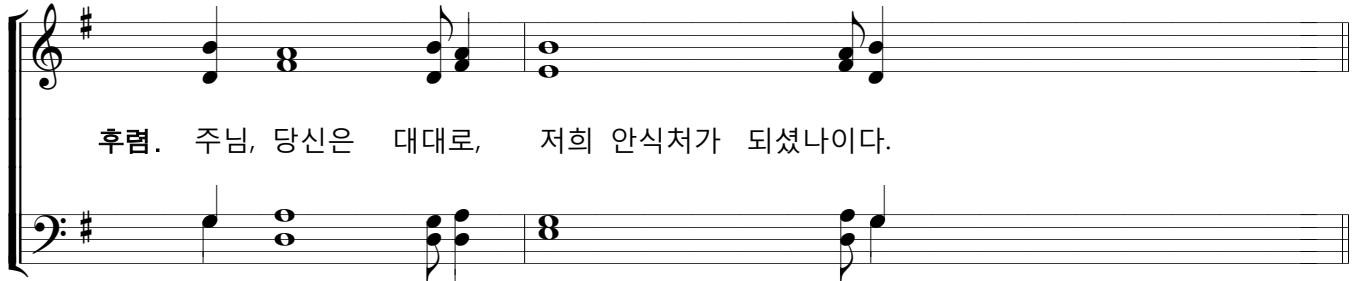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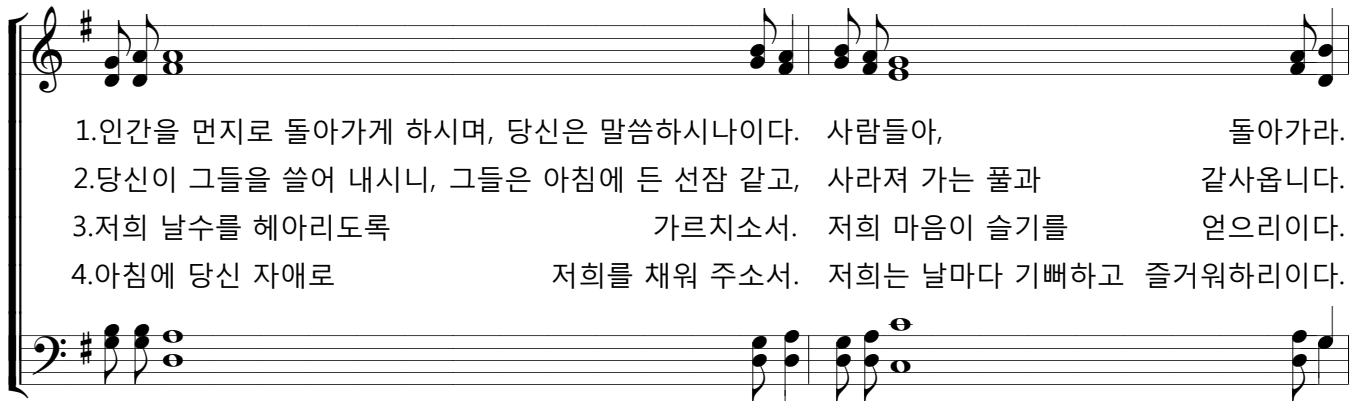
연중 제 18 주일 (다)

2022.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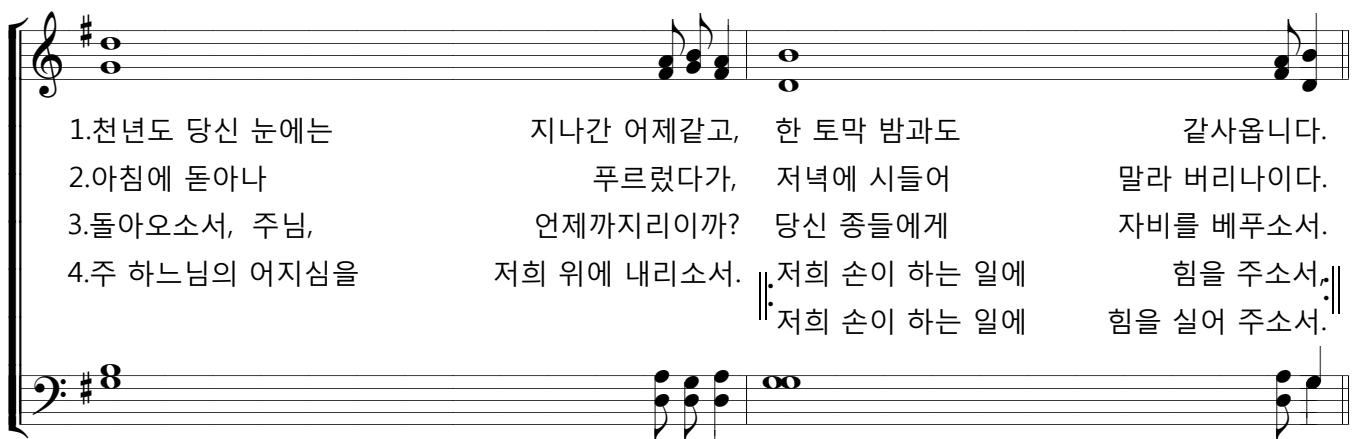
시편 90 (89), 3-4. 5-6. 12-13. 14와 17 (◎ 1)



후렴.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1.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2.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3.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4.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1.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2.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3.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4.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